각종 佛事 상담
一心佛院
大佛, 小佛
佛壇, 탱화,
단청, 단청
불교용품일체
☎ 02)725-2030, 2040 (조계사옆 포교원 입구)

여시아문
인터넷 도서주문
전화 : 02)737-0695
팩스 : 02)737-0696
www.yosiamun.com

임제선 법맥…여섯 고승영정 선암사 봉안

선종이 중심이 되는 한국 불교에 있어 고승 진영은 제자들이나 재가 신도들이 스승의 존재를 떠올리며 수행의 경책으로 삼고 위안을 얻는 대상으로 기림을 받았다. 또 진영을 조성해 역대 스승의 법통을 세움으로써 가풍을 형성하고 정신적 결속을 다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여러 사찰의 조사전에는 종파의 시조나 사찰의 창건주를 비롯한 역대 고승들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최근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주지 지허)에서는 달마선사와 육조혜능, 임제의현, 양기방회, 석옥청공 그리고 태고보우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는 불사가 진행되고 있다. 태고 보우 스님의 임제선풍을 잇고 있는 선암사가 여섯 고승의 영정을 모심으로써 임제선의 맥을 잇고 한국불교의 선풍(禪風)을 널리 펴기 위해 추진하는 일이다.

◇고승영정은 외형뿐 아니라 가르침까지 담고 있어야 한다. 임제 스님 영정.

◇지난해 12월 선암사 조사당에 모셔진 태고종 종조(宗祖) 태고 보우 스님 영정.

◇선종 6조(祖) 혜능 스님의 영정. 현재 남아 있는 영정에서 스님은 항상 두건을 두른 모습으로 표현됐다.

보우스님 이어 3일 혜능·임제 스님
연내 달마·양기·청공 스님 봉안

지허스님·불화가 김범수씨 앞장
황토색 닥종이·석채물감 사용

◇일본에서 석채를 배운 불화가 김범수 씨가 석채를 이용해 영정을 그리고 있다.

◇임제선맥의 여섯 스님 영정을 모시는 선암사 조사당.

◇가사를 매는 장식 등 고려시대 법복의 세밀한 부분을 엿볼 수 있다. 태고 보우 스님 영정 부분.

선암사는 작년 12월 종조(宗祖)의 사상과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태고 보우 스님의 영정을 조사당에 모신데 이어 3일에는 혜능, 임제 스님의 영정을 봉안하고 올해 안으로 달마, 양기, 청공 스님까지 함께 모실 계획이다.

영정을 봉안하는 이번 불사에는 지허 스님과 불화가 김범수 씨가 앞장서고 있다. 김 씨가 선암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태고 스님 영정 작업을 맡으면서부터다. 이후 지허 스님이 여섯 분의 조사 진영을 모시려는 원을 세우면서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김 씨다.

현재 선암사에는 도선국사(827~898)와 대각국사(1055~1101)등 20여 영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법당에서 피우는 향 그을음과 오랜 세월로 인한 종이의 산화로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김 씨는 닥종이에 석채(石彩)를 사용해 영정을 조성하고 있다. 석채란 천연 재료에서 색을 추출한 후 이를 아교에 개어 물감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청색 계통에는 감청석이 원료가 되고 흰색은 대합과 같은 조개껍질이 주 원료가 된다. 석채를 사용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우선 닥종이에 황토를 10여 차례 칠해 색이 우러나도록 한다. 이는 종이가 직접 산소와 접촉해 색이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석채 물감 역시 20여 차례 덧바르는 과정을 거쳐야 색이 곱게 우러나고 물감이 두텁게 올라도 떨어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영정을 그리기 전에 해야 할 일은 기본 자료를 찾는 일. 지허 스님은 일본과 중국에 전하는 조사들의 영정을 찾아내고 스님들의 계송과 어록, 가르침 등의 자료를 수집했다.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어떻게 표현해낼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김 씨 역시 조사들의 영정을 찾아내 비교하기도 하고, 고려시대 복식 연구와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문양 재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런 작업을 거쳐 한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보통 3~4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한 장의 그림에 모습은 물론 가르침과 생애까지도 담아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더디지만 정확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지허 스님과 김 씨의 생각이다. 많은 자료들을 토대로 기본 형상과 얼굴을 10여 가지 형태로 그리면, 선암사 스님들을 비롯한 10여명의 강백들이 모여 여러 스케치 중 가장 스님의 가르침과 모습을 잘 표현했다고 공통으로 느끼는 작품을 선택해야 비로소 채색작업에 들어간다.

이렇게 힘든 작업이지만 김 씨는 "조사당에 모셔질 여섯 분 영정을 보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느끼고 또 발심하게 된다면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라고 앞으로의 작업에 대한 의욕을 내비쳤다.

◇고려 불화에 나타나는 여러 문양을 재현했다. 육조 혜능 스님 영정 가사의 당초무늬.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영정불사 이끄는 지 허 스님

"현재 우리나라 불교는 법맥에 대한 인식이 흐려진 상태입니다. 혈맥이 끊어지면 피가 돌 수 없는 것과 같이 법맥을 잊은 불교는 그 방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정 봉안을 계획하며 임제선의 맥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지허 스님은 "진영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불법을 실천한 스님들의 가르침을 가슴으로 느끼고 배우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태고종맥 알리는 기회로"

그러나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모셔지지 않았던 스님들의 영정을 그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스님들의 게송과 어록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고, 각국에 흩어져 있는 영정 자료를 수집했다는 스님은 "이번 불사가 원만히 회향된다면 임제선의 법맥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태고종의 종맥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봉안 취지를 밝혔다.

영정조성 불화가 김범수씨

"모양 그리기는 쉽지만 마음 그리기는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정을 그리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그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불화가 김범수(50) 씨는 영정을 그리는 일이 단순한 모사(模寫)가 아니라 선사들의 가르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선암사 영정봉안 불사를 맡은 김 씨는 원광대학교에서 동양화를 배우고 일본 경도예술대학에서 불교

"고승 가르침 심혈다해 표현"

미술을 전공했다. 이때 석채를 본격적으로 배웠다. 25년 동안 석채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온 공력을 모아 이번 영정들도 모두 석채로 그렸다.

백양사의 각진국사 영정과 공림사의 탄성스님 영정을 그리기도 한 김 씨는 하나씩 선을 그을 때 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한다고 한다. 선과 색 하나하나에 연화장 세계가 펼쳐지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으려는 것이다. "작품마다 선사들의 가르침을 담으려는 저의 마음이 그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는 김범수씨는 현재 원광대 한국문화학과 객원교수로 재직하며 영정 조성작업을 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